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음 6월 16일) 제233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명칭 바뀐다

국무회의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으로 변경 법률개정안 통과
지원 규정 '출연하거나 보조' 로 변경 센터 재원 정부·지자체 출연 근거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사장 윤태진, 이하 '지원센터')가 지난 16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기관 명칭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지원시설을 통해 경영 및 기술지

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올해 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되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관리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명칭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 지원센터의 기업지원시설 명칭에 '센터' (기능성식품평가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식품벤처센터)라는 명칭이 중복되어 혼란

스럽다는 입주기업의 민원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라는 규

정을 '출연하거나 보조'로 변경해 향후 지원센터의 재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일 이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 시 정식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조호일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에 기관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내 최초 식품전문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지' 도약을 위해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화이팅” 17일 전주 이종본에서 열린 제18회 민주평통 전북지역 운영위원 초청 간담회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민주평통 전북지역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티팅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금 700조원 돌파’ 지방이전 리스크 꺼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기금운용에 장애요인이라는 소모적 논란 종식될 것” 설명
“금융기관 유치 필요” 강조... 30일 투자협약 협약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이전 2년만에 지방이전 리스크를 꺼고 성공적 정착 단계에 들어 서고 있음을 밝혔다.
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17일 전북 농협 회의실에서 전북혁신도시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기금 700조원 돌파의 의미를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후 올해 4월까지 기금적립금은 700조원을 돌파했으며, 기금운용수익이 78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향후 기금본부의 전주이전이 기금운용에 장애요인이라는 소모적 논란은 종식될 것이라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특히, 간담회에서 김성주 이사장은 “전북혁신도시의 금융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사람이 모이는 금융생태계 조성이 중요하

다”며 “금융생태계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유치 및 동반이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민연금은 이달 30일 금융투자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금융기관의 추가 유치가 확실시된다.
앞서, 지난 12일 글로벌 수탁은행 SSBT(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주사무소 개설인가를 받았다. SSBT는 오는 8월부터 전북혁신도시에 전주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인적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금 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맥클렌버그 카운티의 소재지인 샬럿(Charlotte)을 모델로 삼아 전북혁신도시를 성공적인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윤성기자

전주시, 3년 연속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지자체’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일자리 창출 등 '결실'

전주시가 3년 연속 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을 잘 한 우수 지자체로 평가됐다. (관련기사 4면)
시는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 사례를 공유해 지역기반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주시를 포함한 13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11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5개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창출과 사업개발, 전문인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직·간접적인 지원에 총 34억의 재정지원을 했다.
동시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기반

강화를 위해 지난해 79억원 상당의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제품 및 서비스 홍보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www.jsocial.kr)과 전주동물원 휴게소에 마련된 오프라인 플랫폼 '전주점빵' 등을 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해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공감할 수 있는 장을 꾸준히 마련해왔다.

이 외에도, 시는 △주민중심의 사회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혁신파크 구축 추진 △사회적경제 청년서포터즈 운영 △프로보노 데이 운영 △사회적경제조직 정기적인 컨설팅 △우선구매실명제 △크라우드 펀딩 대회 개최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 확산,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돕기 위해 힘써왔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그동안 전주시가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교대 제2학생회관 개축 '첫 삽'

내년 10월 말 개관 목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노후된 제2학생회관의 환경개선을 위한 개축사업 기공식을 17일 대학부지 내 건립예정지에서 열었다.
제2학생회관은 1960년 준공되어 약 60년간 대학의 역사를 함께한 건물로, 그간 내·외부 정비를 통한 시설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졌었지만, 노후화와 공간제공의 한계 등으로 개축에 대한 요구가 여러번 제기되었다.
제2학생회관은 연면적 1460㎡(442

평)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약 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까지 총 2년간 사업 추진으로 2020년 10월 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주요용도로는 총학생회실, 동아리방, 창고, 다목적실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우영 총장, 유광찬 前총장, 윤덕인 동창회장, 보직교수, 전 교직원 및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일 사무국장의 추진경과 및 사업개요 보고를 시작으로, 김우영 총장 축사와 내·외빈의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